

사람과 사람사이



농림장관 조찬 간담회 참석



■ **황인구**
지난 10월31일 오전 7시 30분 센트럴 시티 센트럴 웨딩홀 5층

에서 농어민신문사 주최로 열린 '농림부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 식품원료용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과 변칙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WTO체제에 대응 국산 한약재의 품질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약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시행을 호소했다.

제2차 실무교육 실시



■ **이웅황**
경기도지회장은 이달 중순 경 2박 3일 일정으로 '도지회 신입회

원 제2차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군 소재 이지회장 소유 약초농장에서 실시될 이번 실무교육은 지난 여름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약용작물 재배기술 및 공판장 운영 방안 등 여러 가지 실무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 마지막 날에는 송년회를 겸한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생약농업육성 건의



■ **이승엽**
전북도지회장은 지난달 20일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내용을 토대로 국내 생약농업 육성과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정부에 제출했다.

농림장관 표창 수상



■ **함승주**
이사(강원도 평창군 지부장)는 내추대성 우량품종인 "만추당귀" 육성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26

일 제2회 우리품종전시회 폐회식에서 농림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함이사는 생약협회가 우량품종육성 차원에서 추진한 "만추당귀" 육성사업을 맡아 지난99년부터 평창군 내에 만추당귀 채종포를 조성, 관리해왔으며 지난해 430kg 종자를 생산농가에 보급했다.

강원도지회 회의

■ **허수** 강원도지회장은 11월14일 원주에서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2001년도 만추당귀 생산분 처리방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국내 생약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 국산한약재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

인사

[임명]

△합선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사무소장(2001.10.9일부)
△최동진 중앙이사(2001.11.20일부)
△이종훈 경기도 동두천시 공판장장(2001.11.29일부)

[해임]

△성백덕 중앙이사 및 충남 예산군 지부장 △박찬현 경북 예천군 공판장장(이상 2001.10.9일부)
△주수득 경남 진주시 서부 지부장(2001.11.29일부)

[중앙회원가입]

△강규원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50-257(2001.11.12일부)



시간안내

의정부시, 야생식물도감 3집 발간

의정부시는 30일 관내 자생식물의 특성 등을 수록한 야생식물도감 3집을 발간했다. 이 식물도감은 의정부여고 이명호(43)교사가 지난 3년간 조사한 야생식물 초본800여종, 목본 400여종 가운데 61과, 154종을 모아 펴낸 것으로 컬러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기록돼 있다.

도감에는 한약재로 사용되며 단맛, 쓴맛 등 5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와 우리나라 산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흰 앵초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수록돼 있다.

시는 발간된 도감을 도내 31개 시·군과 환경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관내 학교 등지에 배포키로 했다.

제98차 이사회 이모저모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 10월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 팔공산 파크 호텔에서 제98차 중앙이사회를 개최했다. 정원 31명 이사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중국약초재배단지 및 약초시장 견학 등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의 건 △국산한약재 유통구조 개선안 △2001년 생산분 만추당귀 종자처리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

체벌규정 강화 필요

○...김성배 이사는 식품용 수입약재 반입건과 관련해 "한약방 등에 협회차원의 협조공문을 발송해 우리약재

사용을 호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박철규 이사는 "불법약재 유통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미하고 근거가 미약해 제대로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것부터 체계화해야

○...이승엽 이사는 "인삼 성분이 검출되는 삼철근의 경우 국내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실수요자인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양만을 무역회사에 청구 인삼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올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급조절품목에 해당되는 식품용 반입약재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수요자인 식품제조업

체에 한해서만 수입권을 부여해 들여올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지금처럼 식품용 수입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인한 변칙유통의 폐해를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것을 브랜드화 하여 포장 관리했을 때 수입약재 관리 체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한약재의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

브랜드화로 차별화

○...한편 백문기 부회장은 이에 대해 "식품원료용 수입약재가 제조용과 판매용 구분 없이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입약재 샘플을 채취해 검사해도 국산으로 판명 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중요한 건 국산 한

약재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고 아울러 고품질의 국산한약재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차별화 하는 일"이라고 강조.

소비자 신뢰구축 필요

○...정형모 부회장은 "국내 생약농업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한가 계약재배 필요성을 강조. 남기철 감사도 "생산자단체인 생약협회가 주축이 돼서 품질인증을 거친 국산한약재를 자체 브랜드화함으로써 국산한약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한약재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 : 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람에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독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